

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

ⓒ 나동욱 기자 | Ⓞ 승인 2022.05.18 08:31

국가연구장비를 활용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공 인정받아

[베리타스알파=나동욱 기자] DGIST는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가 '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유공'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과정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포상 및 장관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사기와 명예를 고양하고자 '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유공 포상제도'를 실시하고 있다.

김봉훈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연구사업, 나노/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,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1년 9월 세계적인 과학 권위지 '네이처(Nature)'에 표지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.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'바람에 의해 퍼지는 씨앗의 구조를 모사한 3차원 비행체'와 '공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전자소자'를 결합해 차세대 환경오염 관측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.

또한 2017년과 2019년도에도 사이언스(Science)에 논문을 발표해,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로 평가받는 NSC(Nature, Science, Cell) 저널에 총 3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학계에 발표하고 있다.

금번 장관표창 수상자인 김봉훈 교수는 "이렇게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.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."고 수상소감을 밝혔다.



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(우측)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박정환 센터장(좌측) /사진=DGIST 제공

저작권자 ©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나동욱 기자